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자녀)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 역전되리라

‘엘가나’라는 한 남편을 섬기는 한나와 브닌나. 그러나 브닌나에게는 있는 자식이 한나에게는 없었다. 한나는 브닌나 앞에서 패자였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비롯한 많은 자식을 주셨다. 역전이다.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음모를 꾀한다. 그러나 모르드개가 이를 알고 여동생 에스터 왕비에게 금식기도를 강권하여 이를 해결하고, 때를 맞춰 왕이 오래 전에 모르드개가 자신의 신변을 보호했던 사건의 일기를 읽음으로 모르드개 대신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는 역전이 일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른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는 것이다. 입다가 서출의 아픔을 이겨내고 길르앗의 최고 용사가 된 것,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으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모두 역전의 드라마다.

인류역사상 최고의 역전 드라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예수님은 집하실 때부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씀이 없으셨다. 누가 봐도 패자의 모습이였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분명히 사단의 승리였다. 그러나 사흘 뒤 전세는 완전 역전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다. 그래서 우리 같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역전시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역전시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역전시켜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신다(고전 1:27-28).

패자의 삶인가? 늘 남들보다 뒤떨어지는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분께 구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시42:3)하며 비웃는 자들 앞에서 역전하리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시42:11). 역을 하거든 믿음의 선전들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움직여라. 너는 반드시 역전하리라.

# 성전건축을 위해 합심기도 합시다

유튜브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고, 수요일예배와 주일에배에 더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고 있음을 화면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생방송 조회수나 설교 동영상 조회수도 범상치 않다. 이전 성도들을 말로 속일 수도 없는 시대이고, 모두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한마디로 개명된 세상이다.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점도 누구나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찾는 세상인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으랴.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다보니 우리가 서울교회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KBS아레나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유튜브 방송을 보고 교회를 찾아왔다가 차

음이 분명하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하다. 이제 서울교인들 뿐 아니라 교단의 모든 성도들과 땅끝예수전도단의 모든 회원들이 합심하여 서울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서울교회는 단지 지역교회가 아니라 예수중심교단의 본부교회다. 따라서 예수중심교단에 속한 모든 교역자, 성도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이 일에 매진해야 한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라면 서울교회 건축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임을 바로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님께 늘 배운 대로 하나님이 여신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한 일을 누가 막을 수 있

며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훼손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의 사건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깊이 유념하여 살펴볼 일이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다. 느헤미야는 그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역에 쓰임 받은 도구였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훼방자들이 있었고, 방관자들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대업을 이룬 동지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들의 궤적 모두를 이름과 함께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기록될지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에 쓰임 받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흥하고 있는 서울교회 예배광경(KBS아레나)

곳이 없어 그냥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온다. 교회부흥의 증거라 기뻐할 소식이지만 한데 찾아온 고객을 그냥 돌려보겠다는 안타까움이 더 큰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교구차량을 순차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방법을 써보기도 하지만 역부족인 듯하고, 주변 건물 주차장을 섭외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꼭 떠오르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웃은 아빠가 사줄게.”

더군다나 목사님은 올해 신년 첫 주일에 배에서 서울교회 건축을 마음에 작정하셨다고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인가. 갈수록 뉴미디어들이 다양하게 발전되어가고 그에 따른 영상이나 오디오의 높은 퀄리티가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려면 고가장비들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체 성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또한 기도원 숙소건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원을 찾는 성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목사님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다. 이제 앞으로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기도원 숙소 및 서울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자재와 감당할 일꾼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한데 모아 기도하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벽돌 한 장을 쌓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기도로 튼튼한 기초를 쌓아야 한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튼튼한 기초를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교역자,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여 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계획하시고 작정한 일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리라 확신한다.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4:30~34)



#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인간은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인생의 자본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지런함이 그 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므나로 비유했지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에게 자본금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마25:16)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마25:17)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으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을 파고 묻어뒀습니다. 게으름 피운 거지요. 그런 그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한 시대의 맥을 그은 사람들, 꼭짓점 인생을 사는 사람들, 믿음의 선전들이 자본금이 많아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지런했기에 환경을 뛰어넘어 성공한 것입니다.

### 부지런한 자의 발에는 잡초가 있을 수 없다

'근면(勤勉), 성실(誠實)'은 성공한 자들이, 성공한 회사가, 성공한 나라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하다 할 수 있지만, 근면 성실이 성공의 밑거름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전들도 다 근면 성실로 일관하였기에 역경을 이겼고, 목적을 이뤘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돌베개를 베고 잤던 야곱이 수많은 소 떼와 양 떼를 이끌고 금의환향할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착취하고 딸을 미끼로 노동을 강요한 외삼촌 밑에서도 부지런이란 무기로 엄청난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불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창31:40).

느헤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찌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졌고 낮에는 역사하라"(느4:21~22).

사도 바울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의 지명이 계속 나옵니다. 수리아, 에베소, 가이사라, 갈라디아 등...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살전2:9). 그런 그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12:11).

저는 비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제가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총회장 이초석 목사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 부지런을 넘어 바지런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편안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하루 두 끼만 먹었습니다.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더니 오늘에 이릅니다.

제가 70 평생을 살았지만 게으른 사람이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런과 게으름은 빛과 어둠 같이 상반되는 것임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10: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12:24),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잠13:4),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라"(잠22:29)...

우리는 영·혼·육의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먼저 영적인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귀신들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키는 방법에 대해 회의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죽이자는 의견도, 감옥에 가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채택된 방법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도 믿게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는데, 단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부터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습니다. 그것은 알기에 성경은 '항상 선을 좇으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살전5:15~17). '항상', '쉬지 말고'는 '부지런히'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혼적으로도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주경야독(晝耕夜讀), 형설지공(螢雪之功), 이런 말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자들을 대변합니다. 요즘 소위 '한가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하고, 많이 쉬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설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손발이 아니라 머리를 부지런히 쓰는 것이 더욱 유익한데, 이것은 혼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쇠뿔머리로 엿을 바퀴 먹고 말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낮이나 호미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바늘을 만들어 팔아 몇 십 배의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바빠 돌아가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자기관리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병원 심방을 자주 가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병든 자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 게으름은 악이요 인생의 독소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병들어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원 침대, 즉 병상이다. 젊어서는 죽어라 돈 벌고, 병드니 죽어라 돈 쓴다."라고 했었는데, 백번 옳은 말입니다.

건강할 때 부지런히 운동하고, 보약도 건강할 때 부지런히 먹어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육체가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있어야 영도 담을 수 있고, 혼도 담을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어야 상급도 쌓을 수 있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에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진하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창25:7), 이삭이 180세에(창35:29), 야곱은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창49:33).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건강하게 다 살고 부르심을 받았습니.

자동차는 부모가 사줄 수 있지만 관리는 내가 해야 하듯, 하나님이 주신 육체는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아내는 곧 부지런한 여인임을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여인이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은 물론이요 자식까지, 그의 식솔들까지 영화를 누리게 되나 게으른 여인이 집에 들어오면 가족은 물론이요, 가산(家産)까지 곤두박질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가진단 해봅시다. 게으른 사람인지, 부지런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게으르면서 세상 탓, 부모 탓이나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시해야 일하는 머슴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매번 늦어 허둥대는 시간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만일 그렇다면 그런 나와 싸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3년 동안 실과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주인이 찍어버리려고 하자 과원지기가 말하길 부지런히 거름을 주고 기를 테니 말미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께, 사장에게, 주인에게 찍혀 버리기 전에 게으름을 떨치고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성공은 편안함을 포기한 자의 몫입니다. 2020년,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 주파수를 맞춰라

예전에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사이클 주파수를 잘 맞춰야 했다. 방송국에서는 계속 방송신호를 내보내고 있는데 들리지 않는 것은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다. 또 TV방송 초기에는 지붕위에 안테나를 달아야 시청이 가능했는데, 그 안테나가 틀어지면 화면이 안 잡히기 때문에 때때로 지붕 위에 올라가 안테나를 잡고 이리 저리 돌리며 화면을 맞추곤 했었다. 방송은 계속되고 있는데 안테나가 제대로 방송신호를 잡지 못하면 TV시청을 할 수 없었던 거다.

목사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비유로 자주 설명하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엉뚱하게 틀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육체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자연치유능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그래도 문제가 될 때는 지속적인 신호를 내보낸다. 평소와 다른 불편한 느낌이나 피로, 통증 등등의 여러 증상들이 그것이다.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고 증증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이러한 무수한 신호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자신의 건강을 자신하거나 하여 병을 키운다.

Henry Han

잘 생각해보라. 잘 돌이켜보라. 분명 과로했거나 음식조절을 잘못했거나 운동을 게을리 했거나 등등 여러 원인들이 있었고, 그로인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신호들을 보내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호에 미리미리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점검하고 대처했다면 병을 키우는 일은 결코 없었을 텐데 점검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것 역시 부지런하지 못한 처사다. 게으름이다. '내일하지, 다음에 하지', 하며 점검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일을 당하고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느냐'며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겠는가.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몸을 관리할 책무는 각자에게 있다. 차는 아버지가 사줘도 관리는 내가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만물을 들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건만 사람이 무관히 여긴다. 어떻게든 피를 버리고 교만을 막으시려, 또 그 혼이 구렁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이 같게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조는 중에, 잠든 중에,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사인 처듯 교훈하시건만 무시하거나 설마 설마 하다가 재앙에 빠진다(욘33:14~18). 누구나 건강을 바란다. 그러나 건강 역시 부지런히 노력해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법,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부지런히 점검하고 노력하여 건강하고 힘찬 한 해가 되어야겠다.

Henry Han

# 하나님의 계획

인생은 퍼즐이다. 이미 완성된 그림을 조각조각 만들어 그것을 다시 맞추는 퍼즐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의 그림도 이미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는 나를 두고 하나님께 서원하셨단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더욱이 총회장 목사님께서 방송국을 만든다고 하셨을 때 방송국에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한다.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퍼즐 한 조각씩을 맞춰가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영상에 관심이 많았고, 그쪽으로 진로를 선택했다. 도중에 '이 길이 맞는가' 하는 갈등도 있었지만, 내 달란트가 그쪽임을 깨닫고는 곧장 직진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다.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일에만 쓰

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나중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때 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놀랐다. 나의 인생 과정이 왜 그랬는지 퍼즐 조각이 맞춰지니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화 '기생충'의 대사 중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가 생각난다.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미 완성된 퍼즐 그림을 알고 계신다. 다만 그것을 조각내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다. 완성해보라고. 퍼즐 맞추기는 조각이 많을수록 어렵고 힘들다. 몇 번 뒤집어엮어야 한다. 그러나 과정은 있으나 결과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미 그려 놓으신 모습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은성



:: 생명의 말씀 ::

# 순종

약국에서 예쁜 모양의 입술보호제를 발견한 딸아이가 갖고 싶다고 한다. 옆에 있던 아들도 로봇이 달린 같은 제품을 갖고 싶어 하는 눈치다. "넌 예전에 썼던 거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사자."고 하니 잠깐 실망하는 듯하더니 "알겠어요!" 한다. 이어서 "엄마는 저희랑 하는 약속 잘 지키시잖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는데, '아, 이 아이가 엄마를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기뻐다.

어린이의 작은 순종에도 부모 마음이 이처럼 기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실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 것이 그러했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러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무려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와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 하리라며 풀무불을 택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자량이 되었다. 구름떼같이 많은 믿음의 선전들은 환경도, 사람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능과 지식, 감정까지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아

래에 두었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날로 자라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다(엡4:13).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좋은 듯하나 결국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통해 확인하곤 한다. 그럼으로써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일점일획도 틀림이 없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배워간다. 아들이신 예수도 순종하심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히5:8~9),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도 베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온전함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아버지가 뜻하신 곳에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국진 사모

:: To Be Succeeded ::

# 토끼와 거북이

교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운행 구간에 삼거리가 있다. 신호체계를 잘 알기에 신호가 바뀌면 쏙살같이 1등으로 출발할 때가 있다. 그러면 쾌감을 느낄 뿐 아니라 그다음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신호들이 열려 가속을 내어 달리는 구간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음 신호변경에 시간차가 생겼다. 서둘러 출발해보야 소용없도록 만든 것이다. 신호의 템포가 맞지 않으니 속도를 늦춰 어정쩡하게 달리다 말다를 반복하고, 나보다 한 박자 늦게 출발한 차들에게 도리어 추월당한다. 그때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전9:11)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빨리 출발해서 시간을 단축한 듯 했으나 오히려 가속할 수 없는 중간 구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빠른 출발보다 제 때에 출발해야 오히려 가속도를 붙여 달릴 수가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경쟁문화에 익숙하여 달리다가 때로는 나 자신을 잊어버린다. 다 자기에게 맞는 템포와 때가 있는데 말이다. 남과 비교하며 조바심 낼 것 없이 자기 템포를 충실히 유지하면 된다. 그러면 곧 가속도의 시간이

온다. '신속 정확'이 아니라 '정확 신속'이다. 느려 보여도 정확한 한 템포 한 템포들이 축적되면 결국 신속해진다. 나에게 맞는 템포를 충실히 따르다 보면 결국 선착하게 된다. 남들보다 빨리 출발했으나 중간 과정이 의미가 없다면, 서두른 것이 독이 되기도 한다. 토끼가 왜 거북이에게 추월당했는지 깊이 유념할 일이다.

연말 방송연예대상에서 어느 신인상 2관왕 수상자의 소감이 인상 깊게 회자되어 옮겨본다. "나는 느린 사람이다.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삼수도 했고 아나운서 준비도 29살이 다 돼서 준비를 시작했다. 그런 나에게 올 한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많은 분께서 사랑을 주셔서 감개무량했다. 하지만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 속도다. 빠른 속도에 취하지 않고, 나의 속도, 나에게 어울리는 속도를 잘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

그렇다! 남들보다 한 템포 느려도 괜찮다. 나만의 템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가속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송직화 목사

# 대박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 은유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대박의 기도를 해주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중이라 스페인 출장을 못 가게 되어 대박이가 총책임자로 2명의 직원들과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피투르(FITUR)라는 국제관광박람회인데, 세계에서 1위로 큰 관광박람회이고, 2020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주빈국으로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주일부터 통관이 지연되더니 어제 행사

세팅을 해야 하는데 포워딩업체에서는 계속 묵묵부답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는 형국에, 운영경비를 되레 배상해야 할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행사 시작일인데도 오늘은 스페인 왕비가 주빈국인 한국관에 참석한다고 하니 어제는 목 끝까지 숨이 차 오를 수밖에 없는 긴장감에 회사 직원들이며, 가족들이며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모두 합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오늘 새벽 2시 30분, 그러니까 스페인 시간으로는 저녁 6시 30분에 극적으로 승인이 되었고, 새벽 4시 반에 행사장으로 물건을 무사히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알게 된 사실인데, 배송업체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는 내내 아무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5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직원이 어디선가 나타나 도와주겠다고 와서는 복잡한 서류를 막 챙기더니 한 시간이 걸릴지 두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기다려보라고 하고는 세관에 찾아갔다

고 합니다. 막 10분이 지나서 오더니 굿뉴스라며 무사히 통과되었다고, 전례 없던 상황이라고, 이걸 기적이라고 했답니다. 보통 스페인 통관부서 직원들은 오후 5시 이후로는 절대 업무를 하지 않고, 저녁 6시 30분 이후로 통관 승인이 난 건 이번이 최초라며, 그 배송업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네요. 같은 상황에 처했던 네팔 사람은 기다리다 물건 받길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주님이 너를 잊은 적 없고, 믿음이 너를 버린 적 없다'는 목사님 말씀을 끝까지 믿은 대박이는 그 물건을 끝내 찾아오야 말았던 것입니다. 물건을 받은 순간 펄펄 울며 제게 전화했는데 저도 얼마나 울었던지... 대박이가 이번 일을 통해 더 굳건한 믿음이 생겼을 거라 확신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가 목사님께 배우지 못했더라면 어쩔 뻔 했나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목사님 믿음만 따라서 살려고요! 항상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주신 - 지금 대박이는 스페인에서 한국의 향을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에데니고 김은유 올림

# 위험 감수

얼마 전, '위험 감수'에 대해 기가 막힌 정의를 내린 멋진 글을 보았다. 인도의 1세대 글로벌 사업가이자 2009년 타임지 선정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에 뽑힌 로니 스크류벨라의 글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험 감수란 남들이 안전한 길을 선택할 때 자신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돌진하는 것이고, 예상되는 손실보다 보상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이다.' 이 글대로라면, 자신은 남들과는 다르게 안전한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남들이 안주할 때, 자신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돌진했다는 말이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과연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 수차례 실패를 경험하고 바닥부터 다시 일어선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성공하였고, 마침내 부와 명성도 얻게 된다.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 예측이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앞에는 늘 두려움과 마주한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길로 나아갈 수 없고, 이 두려움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을 먹고 안전한 길로 회귀한다. 결국 성공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는가? 내 한계를 시험하는 어떤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가?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내 스스로를 이기고 넘어서기 위해 담대하게 한걸음씩 전진하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분을 힘입어 두려움을 쫓아내고, 잃어버릴 수 있는 손실보다 더 큰 보상과 상급을 기대하며 돌진해보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위험 감수'가 필요한 정확한 그때이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2020학년도 예수중심제자원 신입생 모집 문의: 02. 533. 9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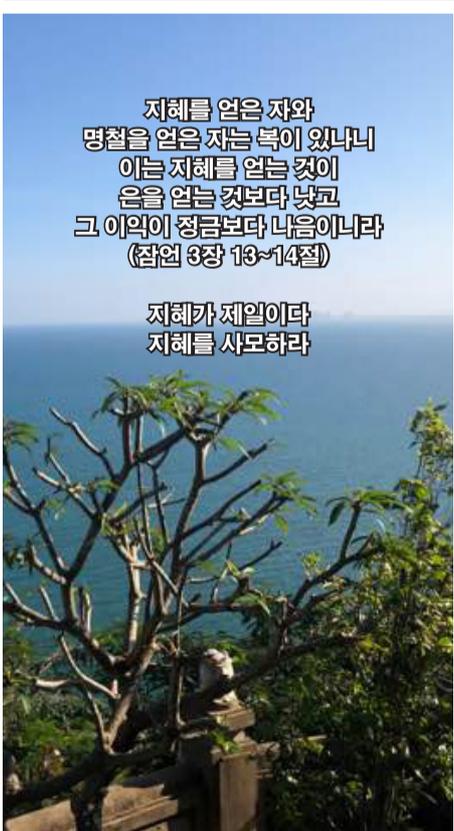
# 성실, 꿈을 이루는 재료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어쩔 '성실함'이라는 단어는 지금의 저성장 시대에서 매우 흠대받는 개념이 아닐까 싶다. 고도로 자본주의화 된 시스템이 장악하는 사회,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사회에선 '열심히 해봤자 남 좋은 일 해주는 것'이 되고 개개인의 노력이나 성실함은 착취되거나 소진당할 뿐, 개인 차원의 노력보다 시스템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성실하다'란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칭찬이나 찬사라고 느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뭔가 계속 열심히 하는데 눈에 띄는 결과는 나오지 않고, 언제나 책을 끼고 살지만 공부를 특출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하고 무난하기 그지없는 사람에게 측은지심으로 하는 표현이라 생각했다. 이렇듯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뭔가를 열심히 해서 조금씩 쌓아가며 이뤄가는 것보다 어느 순간 느닷없이 얻어지는 것에 더 열광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어느 시대나 인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 나아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었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보든 간에 '성실', '부지런함', '노력'과 같은 단어에 가치를 크게 부여한다. 또한, 성공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여긴다. 이는 사소하고 평범한 현상에 숨어있는 성공의 비결을 찾아내고, 일상생활에서 그것들을 수백 번 반복하는 것만이 무언가

를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빈틴은 여러 차례 연구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냈다. 모차르트, 파블로 피카소, 아인슈타인, 비틀스, 스티브 잡스 등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들은 성공을 위해 최소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했다는 사실이다. '지독한 연습벌레', '빙속의 여제'라 불리는 이상화 선수는 일곱 살 때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신기 시작하여 선수가 된 이후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하여 하루 평균 8시간씩 15년을 연습한 시점에 2014 소치동계올림픽 여자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자그마치 그녀가 스케이트에 투자한 시간이 4만3천8백 시간이다. 반면, 타고 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와 그의 경쟁자인 노력형 음악가 살리에르의 대결에선 언제나 모차르트가 압승을 거두어 살리에르는 아무리 노력해도 천재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 신화는 다양한 변주를 거치며 우리를 매료시켜왔다. 어느 정도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출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허락된 단 하나의 재능이 있다. 바로 '성실'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시편37:3). '성실'은 하

나님의 성품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 다윗은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모든 일을 행한 자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실한 성격을 보시고 목동이었던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성실했고, 왕이 됐을 때도 성실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도 성실했다.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바꿔 말하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성실하다는 것이며, 주변 환경은 물론 자신의 모습과 삶조차도 돌보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시기는커녕 그에게서 떠나라고, 상종 자체도 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말씀하셨다. 성실(誠實, Sincerity), 정성스럽고 참됨을 일컫는 말이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하루를 보내면, 얼어붙은 연못 밑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물처럼 남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봄날 그 빛을 받듯, 우리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쌓아간다면 어느새 꿈에 가까이 도달하는 2020년이 되지 않을까. Dr. 권정미 jmgood77@gmail.com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을니라 (잠언 3장 13~14절)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사모하라